



사랑의 메아리

교황청 재단 고통받는 교회 돕기 ACN KOREA ◆ 2018년도 제4호

© L'Osservatore Romano

“가정이 세계와 역사를 이끌어 가는
힘이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성은 부모와, 형제자매와 함께
가정의 온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성장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3년 10월 25일 교황청 가정평의회에서)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할 때에는 기초 지식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모범 사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바로 하느님을 신뢰하면서 살아온 인생입니다. 부모가 직접 모범을 보일 때 그 효과는 특히나 두드러집니다. 부모가 신앙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경험한 자녀는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훨씬 더 쉽게 맺을 수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일을 모두 떠맡는 경우가 많은 여성에게 자녀의 신앙 교육까지 전적으로 책임지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 교육은 부모가 함께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느님을 찾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아무리 독실한 신자라 하더라도 사춘기 이후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항상 목격해 왔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세계가정대회가 가정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ACN도 이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후원자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귀중한 손길 덕분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CN 수석대표
토마스 하이네겔던
Thomas Heine-Geldern



지난 몇 년간 그리고 또 몇 달 동안 우리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박해받는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성서의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 즉 생존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중국, 중남미, 아프리카의 신자들도 힘겨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신의 가치와 소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하는 데 지장을 줄 때가 많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특히 가난한 이가 난민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방치되어 자신의 총체적 인격을 침해당할 위험에 두 배로 노출된다”라는 점을 언급 하셨습니다. 교회가 처한 이러한 위험을 해소하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도 불행한 일은 발생합니다. 신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영적·문화적 기반을 약하게 만듭니다. 불행이나 전쟁은 영적 혼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라틴어로 종교를 뜻하는 ‘re-ligio’는 하느님과 사람을 다시 이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 이어 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 삶의 기본적인 원리가 열어지고, 증발해 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만의 생각으로 산다면, 그는 스스로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생명 보호, 결혼, 가정 등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결국 하느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각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식과 확신을 바탕으로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이뤄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고 역대 교황은 지난 반세기 동안 인간의 이 놀라운 본성에 대해 늘 새롭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것은 하느님 사랑의 웃임입니다.

성 소수자에 대한 편견, 낙태, 동성결혼, 안락사, 대리모 등은 자연적 본성을 인간 마음대로 조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환경 문제를 자주 걱정하는데, 이것 역시 환경에 관한 문제이며 바로 현대 ‘죽음의 문화’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평화를 가르치는 것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8월 있었던 세계가정대회에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가족이 참가해 ‘가정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ACN은 이 기쁜 소식을 전 세계 모든 가정에 알리며 다양한 ‘가정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문명에는 우리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라크나 시리아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청소년을,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불행의 물결이 우리의 본바탕 자체를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하느님을 지키는 이는 사람을 지킵니다!



ACN 지도신부
마르틴 마리아 바르타 신부
Fr. Martin Maria Barta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



〈민나이다〉를 읽는 신자들



필리핀에 전달된 ACN 어린이 성경



성경 공부 중인 카이로 학생들

짐바브웨 마타벨레를 위한 교리교재 <민나이다>가 드디어 은데벨레어로 나왔습니다

“현지 언어로 된 좋은 교리서가 없으면 복음화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짐바브웨 서부 지역 마타벨레는 불라와요 대교구장 알렉스 토마스 칼리야닐 대주교의 이러한 생각이 딱 맞아떨어지는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은데벨레어 외에 다른 언어는 거의 못 합니다. 8만명에 이르는 불라와요 대교구 신자들은 여러 마을에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칼리야닐 대주교는 교리교육을 위한 소책자 <민나이다>를 은데벨레어로 번역하려 합니다. <응야콜라>라는 은데벨레어 제목을 붙인 이 책자는 불라와요 대교구 본당 47곳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사제가 드문드문 방문할 수밖에 없는 공소로 운영되는 본당입니다. 교리 교재를 쉽고 명료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응야콜라>는 총 5,000부 제작이 필요하며 이웃하고 있는 황에 교구의 원주민 신자 중에서도 15,000명이 은데벨레어를 사용하는데, 이들도 더 좋은 교리 교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CN은 짐바브웨 교리서의 번역, 인쇄, 배포까지 필요한 비용 약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CN 어린이 성경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시다>가 타갈로그어로 발행되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합한 성경 합본은 모두 674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신약성경은 모두 1515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가장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ACN 어린이 성경 <하느님이 당신 자녀에게 말씀하시다>는 지금까지 189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총 5100만 부가 발행되었습니다. 그 수효는 지금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성경은 단지 종교 서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북부 본토 라가웨 교구장 발렌틴 디목 주교는 ACN 어린이 성경을 영어와 일로카노어로 각 4,000부 및 타갈로그어로 500부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어린이 성경이 아이들의 교리 공부에 도움이 되고 교회 공동체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선생과 학생들의 수업에도 활용됩니다. 교구의 가정 사목자들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 쓸 것을 권유합니다. ACN 어린이 성경은 본토 라가웨 교구의 22개 본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CN은 필리핀 교회에 성경 보급을 위한 추가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슬람권인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온건파 이슬람교도는 그리스도인을 ‘성서의 백성들’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아는 것은 자신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콥트 가톨릭교회는 해마다 성명 퀴즈 대회를 개최합니다. 12세부터 18세까지 학생 4,000명이 참가하며 대부분 가족과 함께 대회를 준비하기 때문에 15,000명 가까이 되는 신자들이 6개월간 성경을 공부하고 암기합니다. 최종 라운드에서는 학생 100명만이 대결을 펼칩니다. 이러한 성경 퀴즈 대회는 이집트 말고도 요르단과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복음서와 사도신경, 서간들에서 영적인 감명을 받고 지식을 쌓으며 하느님의 말씀과 늘 함께 한다는 정체성도 확립합니다. **ACN은 성경을 새로 구매하고 성경 퀴즈 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약 6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새 삶을 얻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그레고리오 신부가 찾아가는 청소년들은 지금 감옥에서 이 자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느낄 수 있는 내적 자유입니다.



베네수엘라



그레고리오 신부와 소년들의 모습

그레고리오 신부는 1년 전부터 베네수엘라 동부 카루파노 교구에 있는 소년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강력 절도죄로 수감된 알레한드로(15세)는 “신부님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저희를 완전히 바꿔 주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레고리오 신부가 가져다준 것은 하느님 사랑의 말씀입니다. 카루파교구장의 요청으로 ACN이 지원한 성경과 청년 교리서 <유캣(YOUCAT)>을 전해 준 것입니다.** 알레한드로는 “전에도 성경 이야기를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모두 부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오신 이후로 저는 이제 첫 영성체를 하게 되었고, 며칠 뒤에는 견진도 받을 것입니다.”라고 희망이 가득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알레한드로는 대부분 결혼 가정에서 자란 15~19세 소년범 30명과 이곳에 수감 중입니다. 한 교도관은 그레고리오 신부가 오기 전에도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모두 설교만 할 뿐 “아이들의 사랑과 이해에 대한 갈망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며 “하지만 그레고리오 신부는 마음 열고 아이들과 대화했고 그동안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그레고리오 신부는 “먼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은 고독했고 내면이 메말라 있었습니

다. 그와 동시에 삶의 의미와 사랑, 하느님과의 친교에 관심이 많았지요. 아이들은 이를 성경과 <유캣>을 읽으면서 접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알레한드로는 “그레고리오 신부님의 이야기, 성경 말씀, <유캣>,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바뀔 거예요.”라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합니다. 알레한드로와 같이 견진을 받게 된 다른 소년도 그레고리오 신부가 하느님께로 이끄는 이 새로운 길을 알려준 것에 대해 기쁨을 표현합니다. 또 다른 소년, 안토니오 호세는 “저는 겨우 며칠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철창 안에서 말이죠. 저는 성경도 몰랐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신부님은 제가 앞을 볼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하느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라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소년들을 고무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진리의 기쁨입니다.

그레고리오 신부와 소년들은 <유캣>을 지원한 ACN에도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유캣>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좋지 못했던 행동과 성격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유캣>을 읽을 때 우리는 ACN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ACN이 우리를 직접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낙서가 보이십니까? 이건 다에시(이슬람국가, IS)가 우리를 겁주려고 써놓은 것입니다.” 조르주 자홀라 신부가 성당 벽면에 아랍어로 ‘알라는 위대하다’ 또는 ‘IS는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적힌 낙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성당은 이곳저곳 훼손되었으며 시계탑도 무너졌습니다. “다에시가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폐허를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고향, 카라코시에서 일어난 이 가장 끔찍한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한 것입니다.”

이라크 북부 도시 카라코시는 전국을 통틀어서 그리스도교 신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2014년 8월 다에시로 인해 피난을 떠나기 전까지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카라코시는 물론 인근 도시에 살던 사람까지 집과 고향을 잃었습니다.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난민 캠프의 나날이 몇 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많은 이가 이라크를 떠나 서방 세계로 갔습니다.

카라코시는 2016년 말이 되어서야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자홀라 신부에 따르면 이곳 주민 가운데 절반이 다시 고향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홀라 신부는 도시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사업을 이끌며 더 많은 이들이 카라코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ACN의 지원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해 주는 원동력입니다. 자홀라 신부는 “여러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지 와서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구멍이 파인 길과 흉하게 부서진 집을 지나면 시리아 가톨릭 신자인 바심 가족의 집이 나옵니다. 단출한 보금자리 입구에는 십자가가 단단하게 걸려 있습니다. 부인 바시마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ACN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운명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바심 가족의 집은 가구 대부분을 도둑맞고 문도 창문도 다시 달고 도배까지 새로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하면 운이 좋은 편입니다. 카라코시에서만 100채나 가까이 되는 집이 완전히 무너졌고 수천 채나 되는 집은 사람이 거의 살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기뻐하는 바심 가족에게도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가장인 바심이 자동차 부품을 거래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데다가 그동안 저축한 돈을 난민 생활을 하며 모두 써버린 것입니다. 공학을 전공한 딸 미리암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근심은 2014년과 같은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시마는 “사실 지금도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다에시가 또 쳐들어올까 우려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자홀라 신부도 신자들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도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만일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이처럼 따뜻하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곳에는 지금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을 수리 중인 Shir

자홀라 신부가 무너진 성당의 시계탑을 가리키며 보여주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온 바시마와 미리암 모녀



행복한 삶을 향한 길

교황 복자 바오로 6세의 회칙 〈인간 생명〉이 발표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이 예언자적 회칙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서방 세계에서는 거의 거론되지 않거나 심지어 비판받기까지 하지만,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가장 숭고한 인간적 친교인 결혼에 대한 찬가로서 사람들을 행복한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로 인도할 수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 위기와 전쟁으로 분열된 콩고민주공화국의 부가부대교구는 사람



들을 행복한 결혼 및 가정 생활로 인도하는 이 회칙이 현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일깨우고자 총 6개 교구에서 활동하는 신부, 수녀, 교리교사를 대상으로 학술 회의를 준비하려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이기심과 경제적 이익으로 인해 비뚤어진 윤리의식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새롭게 직시하고 가정 사목 등 사목 활동의 목표를 정립하기 위해 학술회의를 여는 것입니다. **ACN은 학술회의 개최 비용으로 약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르메니아

콩고민주공화국

방학은 그리스도와 함께

“가정의 행복은 세계와 교회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트위터 메시지에 우리는 “어린이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가정을 위한 교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녀에 대한 최초의 교육자요, 가장 중요한 교육자”입니다. 이때 교육은 부모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인간성을 증여하는’ 과업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과업을 ‘다른 사람들 그리고 교회와 같은 사회 조직’과 함께 나누어 맡을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가톨릭교회가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러시아 등 동유럽 지역에서 운영하는 여름 캠프에서 바로 이 일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리스도교 영성 안에서 캠프 생활을 하고 영적 고향인 아르메니아 가톨릭교회에 관해 많은 것을 배워올 것이라 믿으며 자녀를 이곳으로 보냅니다. 올해는 9세부터 18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 800명이 참가

했습니다. 캠프에서의 하루 일과는 미사와 교리공부 이외에도 체육 활동, 산책, 단체 놀이 등으로 구성되며 아르메니아 무용, 전통과 민속, 아르메니아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름 캠프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처럼 방학을 알차게 보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세례를 받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모두 25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사제, 교리교사와 함께 첫 영성체를 준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더 나아가 가정 사목으로 이만한 것이 있을까요? **ACN은 이 사업에 약 3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후원, 사랑 그리고 감사를 전하는 편지

만남의 광장

ACN은 우리와 고통받는 교회를 이어 주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받는 형제자매와 난민, 폭력과 빈곤에 고통받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월급의 일부를 기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선을 가져오는 것은 돈이 아니라 '타인과 함께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시간과 힘을 요구합니다. ACN은 우리가 다른 이와 함께하며 성모님의 품 안에, 그리고 하느님의 손길 안에 있게 해 주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네 곁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받는 교회를 돕는' ACN입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부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게 이 기부는 선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슬로바키아 교회가 박해받는 지난 시절 많은 후원자 여러분이 우리에게 연대의 손길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곁에 있을 차례입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ACN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교회를 위해 공동체와 가정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저는 이 돈을 원래 저를 위해 써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휴가를 다녀와서 다시 생각해 보니 이 돈은 미안마 카미요 신부의 본당 재건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후원자 여러분의 편지를 기다립니다 ♥

보내시는 곳

- 1)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337호 ☎04537
- 2) 메일: info@churchinneed.or.kr
- 3) 휴대폰 문자: 010-7475-6440
- 4)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고통받는 교회 돕기' 검색 후 친구추가



ACN 한국지부, CPBC 라디오 생방송 출연

ACN 한국지부는 10월 4일 CPBC 라디오 <그대에게 평화를, 장환진 김슬애입니다>에 출연해 ACN의 역사와 정체성을 소개하고 ACN 한국지부의 비전을 함께 생각해 보는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는 19일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에서 열리는 2018년 ACN 심포지엄 '믿는 모든 이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 연대의 다리를 함께 놓읍시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대에게 평화를> 초대석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코너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알림



2018 ACN 심포지엄과 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믿는 모든 이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 - 연대의 다리를 함께 놓읍시다!’

하느님의 보편적 사랑은 모든 사람들을 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는 극심한 가난과 차별, 폭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들과 연대하는 기도와 실천을 원하실 것입니다.

2018년 ACN 심포지엄에서 고통받는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과거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떤 연대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 주세요.

참석신청

ACN 공식휴대전화(문자전송)

☎ 010-7475-6440

이름, 세례명과 참석 여부를 휴대폰 문자(SMS)로 보내 주세요

참석안내

일	시	2018년 10월 19일 (목) 오후 2시
장	소	서울 명동대성당 패밀리아 채플
기념미사		오후 6시 명동대성당 (주례: 염수정 추기경)
문의		☎ 02-796-6440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한 백만 어린이 목주기도 캠페인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그냥 놓아두어라.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사실 하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태 19,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월 18일 목요일,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세계 평화와 일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ACN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100만 어린이 목주기도 캠페인 자료를 신청하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 읽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